

23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4990.07 (+37.54)		993.93 (+23.58)
	금리 (미국재 3년)		환율 (원·달러)
	3.137 (+0.028)		1462.50 (-7.40)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과 만나 에너지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HD현대 인스타그램

다보스 찾은 총수들 AI·탈탄소 협력 모색

국내 산업계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무대로 인공지능(AI)·탈탄소·공급망 재편 등 주요 화두를 놓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0~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다보스포럼’에는 각국 정상과 장관,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기업 CEO 등 약 30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내에서는 정기선 HD현대 회장,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이 주요 행사와 면담 일정에 참여했다.

HD현대 정기선, 4년 연속 참석
팔란티어 CEO·빌 게이츠 회동

포스코 장인화, 탈탄소 전환 논의
HS효성 조현상, 공급과잉 등 점검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4년 연속 다보스를 찾았다. 정 회장은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와 만나 협력 범위를 그룹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했다. HD 현대는 지난 2021년부터 팔란티어의 빅데이터·AI 플랫폼을 도입해 왔으며, 이번에는 적용 대상을 HD현대일렉트릭·HD현대로보틱스·HD현대마린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점검했다.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과 회동해 SMR(소형모듈원자로) 공급망 확대와 상업과 협력을 논의했다. HD현대는 지난 2022년 테라파워에 약 3000만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2024년 나트륨 냉각형 SMR에 탑재될 원통형 원자로 용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SMR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협약을 맺으며 협

력을 확대해 왔다. 철강 분야에서는 탈탄소 전환과 원료 공급망 이슈가 전면에 올랐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마이닝 앤 메탈스 거버넌스 미팅’에 참석해 글로벌 철강사·원료사 CEO들과 철강 탈탄소 전환과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그룹은 현장에서 ‘포스코 파빌리온’을 운영하며 주요 기업인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철강 기술을 홍보했다.

소재·화학 업계는 공급과잉 우려와 지정학 리스크를 주요 변수로 짚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화학 거버넌스 미팅’에 공식 초청돼 바스프(BASF)·다우(Dow)·사빅(SABIC) 등 글로벌 화학기업 CEO들과 중국·중동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리스크와 지정학 변수 대응을 논의했다. 포럼 기간 캐나다 재무장관,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총리와도 면담해 북미·인도 공급망 및 투자 협력을 협의했다.

자원·에너지 분야에서도 공급망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공식 세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편중 리스크와 장기 수요 예측 기반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세홍 GS칼텍스 부회장도 현지에서 에너지 기업들과 만나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팔란티어는 세계적인 AI 기반 분석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 HD현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보스에서 제시된 AI·탈탄소·공급망 전략이 각 기업의 구체적 투자로 이어질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숫자에 자만 말라”… 경쟁력 회복 주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임원 세미나
선대회장의 ‘샌드위치 위기론’ 언급
미중 무역전쟁 등 ‘변수 경계’ 메시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임원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부터 꺾임실적을 기록하며 눈부신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 등 외부 변수에 대비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재용 회장은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쟁력 회복을 주문했다. 삼성은 지난주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진희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는데, 이달 초 이재용 회장이 소집한 삼성 계열사 사장단 만찬 자리에서 처음 공개된 것이다. 선대회장의 주요 발언과 인공지능(AI) 등 올해 경영 전략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 31일 APEC 정상회의 장소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접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영상에는 이진희 선대회장의 ‘샌드위치 위기론’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지금도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달라진 건 경쟁 구도가 바뀌었고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현재 상황에 대한 메시지도 담겼다.

앞서 이진희 선대회장은 2007년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샌드위치 신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용 회장도 이 표현을 통해 구조적 위험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2023년부터 줄곧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8월 공개된 잠정 실적에서 지난해 4분기 매출액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단기 실적보다 기술 경쟁력 회복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 역시 임원들에게 더욱 강도 높은 실행력과 각오를 요구한 대목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에게는 각자의 이름과 함께 ‘위기를 넘어 재도약으로’라고 새겨진 크리스탈 패드 수여했다.

삼성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임원의 역할과 책임 인식 및 조직 관리 역할 강화를 목표로 순차 진행되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전 계열사 임원 대상의 세미나를 2016년 이후 9년 만에 재개했으며, 앞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임원 대상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성운 기자 ysw@

M-커버스토리

수요는 쏠리는데 대출 옥죄는 2금융권

서민들 ‘금융 사다리’ 부족

대출규제 동참… 연체율 압박
여신규모 줄어 수신 역시 축소
‘자금중개 기능 약화’ 악순환

서민들의 자금조달 창구인 ‘제2금융권’의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여파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가운데 정작 저축은행·카드사는 연체율 관리 때문에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 사다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출수요, 1금융→제2금융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0월 1조4000억원, 11월 2조3000억원, 12월 7000억원 늘어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은 10월 3조5000억원에서 12월 마이너스(-) 2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꺾였다.

제2 금융권에서는 10월과 11월에 대출 수요 확대 흐름이 뚜렷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2000억

원→-400억원)은 가계대출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여전사(2000억원→4000억원)와 상호금융(1조 2000억원→1조 4000억원)은 증가폭이 커졌다. <관련기사 3면>

1금융권이 대출문턱을 높이자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 기조 속에 시중은행을 상대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유도해 왔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감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도 높은 관리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 2금융, 수요 늘었지만 여신 영업 축소

대출 수요는 쏠리고 있지만, 정작 제2금융권은 대출 고삐를 죄며 공급을 줄이는 모습이다. 제2 금융권 역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 연체율 관리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6·27 가계대출 규제 도입 이후 4개월 연속(7~11월) 8000억원대에 머물렀다. 매년 1조원을 상회하던 예년 수준을 밑도는 규모다.

저축은행은 수신 기능도 축소했다. 실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수금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99조원으로 반년 만에 100조원 밑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105조원이었던 예수금 잔액이 10월 말 103조원, 11월 말 100조원으로 지속 감소하다 12월 말 99조원대까지 떨어진 것.

결국 전체 외형이 축소되면서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기조에 따라 여신 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을 공격적으로 늘리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만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서 “여신 영업이 활발하지 못하네 수신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 사정도 다르지 않다. 카드사들은 최근 카드론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에 발맞춰 본격적인 총량 관리에 돌입했다. 실제 카드론은 10월 42조751억원, 11월 42조5529억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12월 42조3292억원으로 꺾이면서 전달 대비 0.53% 줄어들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이 대통령, ‘스캠 범죄피의자 역대 최대 규모 송환’에 “격려 방문 해야겠죠”
▲이 대통령 “정치테마 된 코스피, 한편으로 안타까워”
/사진 뉴시스

▲김 총리, 경기 포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차질 없는 방역” 지시
▲與, 쿠팡 차별 논란에 “한미 동맹 신뢰로 강화… 국익은 원칙으로 지켜야”

▲국힘 “장동혁 대표 회복치료 집중”…우원식의 장 병문안
▲국힘 “與 공천뇌물, 김현지 연루 정황까지 드러난 구조적 비리 의혹”